

마음이 문제다

성경말씀: 렘17:1-14

지난주: 예레미야의 낙심: (1) 기도의 응답이 없음, (2) 부당한 고난을 당함, (3) 순종에 대한 대가가 없음, 하나님의 응답(19절): (1) 돌아서라. 방향을 바꾸라. (2)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여 내라. (3) 그들처럼 하지 말라. (4) 약속: 견고한 놋 성벽, 구원, 구속

하나님의 심판과 그 원인

예레미야의 시청각 교육(16장)

1.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딸들을 두지 말라(2). 4절
2. 애곡하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5). 6절
3. 잔칫집에 가지 말라(8). 9절

백성의 질문(10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답변: 우상 숭배(11), 자기 마음대로 행함(12)

유다의 죄는 다 기록되었다(17:1).

명백해서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간에 밀봉되어 차곡차곡 쌓여 있다(신32:34).

1.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필과 금강석 축으로 새겨졌다. 지우려야 지울 수 없다(17:1). 용서받기 전에는 안 지워진다. 히10:16-18
2. 또 그들의 마음 판과 제단의 뿔들에 새겨졌다(1절). 원래 제단 뿔에는 희생물의 피를 뿌렸으나(출 30:10 등) 유다 백성은 이방 신의 이름을 거기에 새김. 사람들이 다 알고 심지어 희생 짐승도 다 안다.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물질의 복, 병 나으려고 다니는 것, 맘몬을 섬기는 것, 마6:24).

3. 아이들도 다 안다(2절).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죄, 해서는 안 될 일, 아이들이 배운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아이들도 그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도...
지난주 가족 음악회: 좋은 유산, 정신세계, 부모가 좋은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한다. 우상숭배, TV, 인터넷 중독, 악한 습관, 심판을 받는다(3.4절). 느13:23-25,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

두 종류의 사람

저주 받는 자와 복 받는 자

1. 저주 받는 자(5,6):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자
지혜, 능력, 재산, 학식, 친절, 신실함,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사람은 육체라 불린다: 썩는다. 흙에서 왔다. 영이 떠나면 먼지다. 석가, 마호메드, 공자, 각종 이단 교주, 창6:3, 사2:22
사막의 소금 땅의 히스나무: 바싹 마르고 홀로 거하며 뿌리가 깊지 않다. 가장 좋은 비 소식: 잠시 재물을 바르게 모으지 않는 자(11절): 대기업, 부의 공정한 분배(약5:1-6)
생수의 샘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자(13절), 렘2:13, 요7:37-39
2. 복 받는 자(7,8):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자, 갈릴리 호수 옆의 나무(가뭄 걱정 없음, 레바논 산)
시1:1-3, 잠3:5-7

문제의 핵심: 마음(9)

9절은 예레미야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14-18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라이켄의 예화, 에드가 알렌 포: '고자질하는 마음'(Tell Tale heart), 자기 마음이 자기를 배신하는 내용

주인공이 악한 노인을 죽이고 그를 마루 밑에 숨겼을 때 경찰이 온다. 이웃 사람이 비명 소리를 듣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함. 들어오라고 친절히 말했는데 그 이후부터 옷 속에 감추어 둔 시계에서 나는 소리 같은 저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함. 경찰들은 못 듣는데 그에게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함. 그는 일어나서 큰소리로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 그는 마루 위를 왔다 갔다 한다. 안자 있던 의자를 뒤집어엎는다. 마룻바닥을 의자로 긁는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 “빌어먹을. 내가 죽였소. 마루 밑에 있소, 그 심장에서 나오는 박동 소리를 듣지 못했소.” 살인자는 그 죽은 자의 심장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 즉 마음에 의해 배신을 당했다.

예레미야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그를 배신하였다.

사도 바울의 고백(롬7:22-24).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속임수로 가득하다, 히브리말로 야곱),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사람을 죄 속으로 밀어 넣는다.

마음은 양심과 비슷하다. 자동차의 계기판 역할, 이것이 망가지면 신호가 안 온다. 사람이 망가진다.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딤후4:1-2). 조용기, 이만희, 안상홍 등

마음을 믿지 말라: 극도로 사악하다. 아합과 같은 존재

아무도 마음을 알 수 없다. 심지어 본인도 본인 마음을 모른다.

자동차 관리하듯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눅6:43-45),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만 마음과 속중심을 아신다(10절)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해도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하소연한다. 성경 사역 속에 방해가 많다.

히4:12-13

신자들: 그리스도의 심판석(롬14:11-12), 불로 시험을 받는다(고전3:13-17)

불신자들: 크고 흰 왕좌 심판(계20:11-15)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 당신은 이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마음을 고칠 수 있다(14절)

‘일러바치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는데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 회개함

목사도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고칠 수도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를 고치소서: 회개해야 한다.

나를 구원하소서: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롬10:10).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의 루디아(행16:14).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마음과 양심의 문제: 말씀이 해답이다.